



報會同總士空

發行人：全 春 雨
編輯人：姜 睿 求
印刷人：金 正 振

(住所) :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 : 150-057 (電話) : 02-845-1090 (FAX) : 02-845-1091 (非賣品)

회보 인덱스

- 2~3 ● 항공 우주시대의 공군의 위상 (I)
- 4 ● 제2건국운동의 현주소와 그 기저
- 5 ● 白翎島 安保探訪記
- 6 ● 總同窓會 消息
- 7 ● 母軍·母校 短信
- 8~9 ● 創意力 開發에 關한 考察 (I)
- 10 ● 風水文化
- 11 ● 健康 코너 (실컷 웃고 들어가 「치매」 막는다)
● 자기에 인격장애자
- 12 ● 道路公社 廣告

億劫의 세월 속에 흐르는 時間은 묵은 해 戊寅을 보내고 새해 己卯를 맞이했다. 이는 自然의 攝理요 天理의 理致이다. 새해에는 누구나 마음먹은 일이 成就되고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世紀末은 언제나 不安했다. 19世紀의 世紀末도 그랬다. 變遷과 混亂, 危機가 잦아들던 세계란 뒤덮었다. 다가올 새 세기에 대한 설계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또 하나의 세기말인 20世紀末에 다시 한번 世界化의 격랑 속에 내던져진 우리의 앞날은 더욱 不安하다. 21世紀가 情報化의 時代에서 지식 사업화 時代가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예측만 해도 그렇다. 그 時代에도 우리에게 보여 줄 그림이 없다.

世界化도 그렇다. 新自由主義라는 「貪慾의 이데올로기」가 변이는 세계제패 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장래는 有限한가, 無限한가? 무한하다면 그 強要된 秩序에 편입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유한하다면 그 뒤를 이을 다른 이데올로기를 學習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 21世紀는 우리에게 幸福의 世紀가 될지 災殃의 世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1999年은 "529호실 사건"이라는 前代末期의 混亂으로 날이 밝았다. 野黨은 場外 투쟁으로 일관했고, 與黨은 마이웨이를 외쳐대며 강하게 밀고 나갔다. 날치기 풍과, 여·야극단대립, 단독정문회 갈등, 정계개편론, 합당론, 안으로 타는 내각제 불씨 등 어는 것 하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

覆轍의 教訓



會長 全 春 雨
· 前 空士校長

다. 만일, 앞으로 21世紀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 정치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불안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야정치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장래나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진지한 합의를 모색하기에 날을 지새도 모자랄 판인데 어찌자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前車의 覆轍」이란 말이 있다. 앞서가던 차가 전복된 바퀴자국은 뒤따라가던 차에게 좋은 훈계가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앞서사람의 실패한 前轍을 명심하여 그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溫故之新」이라는 말도 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현재가 과거 없이 존재할 수 없으나 그저 과거에만 사로잡힌다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렇다하여 과거를 무시하고 오직 새로운 것만을 찾는다면 이것 또한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歷史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교훈적 의미와 지나간 것을 지나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미래의 사대에 영향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의 영향을 받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현재의 의미는 草木이 때가 되면 必然的으로 成長하고 開花하며 結實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季節의 과정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발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렌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虛空에 매달린 거미가 발 디딜 자리를 잃고 온 힘을 다하여 의지할 곳을 찾아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접하는 것은 갖가지 虛空뿐 점차 밀려오는 피로로 쓰러져 버릴지도 모르는 거미의 상태가 마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는 人間의 처지와 흡사하다고 했다.

요즘 우리 社會의 모든 분야가 覆轍의 教訓을 가슴 깊이 새겨 다가오는 미지의 情報化 社會, 世界化의 時代를 맞이하여 統一이 되고 現代化된 偉大한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젊음을 불사하며 祖國의 하늘을 지켜 國家 安危를 책임졌던 보라매답게 次世代 리더 그룹임을 자처하는 우리 星武人은 不確切한 未來를 希望의 未來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옳지 않겠는가?

星武臺

올해는 1999年 癸紀로는 4332年 六拾甲子로는 己卯年 토끼 해이다. 陰陽五行에서 己는 땅에서 田土 짙은 물이있는 흙이요, 하늘에서는 구름을 뜻한다. 그리고 卯는 땅에서는 냇물 일년 苗木이요, 하늘에서는 바람에 속한다. 우리 나라 국토는 卯形이다. 금년의 운세도 하늘에는 구름이요 땅에는 바람이라 모든 것이 안정보다는 마음이 흔들리고 경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우리 민담에 보면 토끼는 힘이 약하고 몸집이

적은 것에 반하여 매우 영특하고 착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토끼는 체구가 크고 힘이 센 우둔한 동물들에게 저항하는 의롭고 슬기로운 동물 구실을 도맡아 왔다. 또한 속임수

話의 해모수나 석탈해가 그렇듯이 目的을 위해서 쓰이는 「속임수의 재주」를 상징하고 있다.

또한, 토끼는 달과 연관되어 女性原理에 속하는 動物, 즉 달 동물로 여겨

일한 고리를 이룬다.

卯日에 남의 집 남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吉하다고 하지만 여자가 들어오면 不吉하다고 한다.

토끼의 이런 길한 상징과 달리 周易에서는 己卯

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상극은 그치는 날이 없다. 깊은 성실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방해되어 가지못해 싸우는 형상이다.

그러나 싸움은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잘 반성해서 화해한다면 길할 것이다. 하늘(乾)은 위를 향하고 물(坎)은 아래로 흐른다. 이 같이 서로가 반복하는 것이 訟의 卦象이다.

君子는 이 패상을 보고 어떤 일이나 그 출발점에서 깊이 생각하여 후일에 紛爭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토끼씨는 직업적으로 는 교육자, 의사, 예술가 등이 좋고 배우자의 띠로는 개띠, 돼지띠, 양띠가 좋다고 한다.

己卯年 띠 풀이

의 명수라는 불명에도 갖고 있다. 전래되어 오는 민담에서는 「호랑이를 속이는 토끼」 「거북이를 속이는 토끼」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토끼의 神話의 原型性은 우리 神

話의 해모수나 석탈해가 그렇듯이 目的을 위해서 쓰이는 「속임수의 재주」를 상징하고 있다. 또한, 토끼는 달과 연관되어 女性原理에 속하는 動物, 즉 달 동물로 여겨

말의 주기와 여성의 생리 현상과 같고 달의 차가움과 음과의 관련 등으로 달과 여성을 묶을 수 있고 또 달과 토끼를 묶을 수 있으므로 결국 달=여성=토끼는 동

년이 암울한 해로 여겨져 왔다. 周易으로는 天水訟의 卦가 나온다.訟은 소송, 재판의 뜻으로 풀이한다. 인간세상에는 싸움이 常存한다. 個人·集團·國家間的 對立 그리고 각자



이진학(18기)
· 감찰감(소장)

I. 서론

다가오는 21세기는 항공 우주력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항공 우주력을 통한 기상정보, TV 방송 및 지정학적 정보체계 등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밀접히 연계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 사용의 단축으로 만미암아 지구 전체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이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 질서는 기존 산업화 사회의 물리적 패러다임(Paradigm)에서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들어 냉전시대의 양극화 현상에서 다극화 현상으로 변화되었으며 정보와 현실이 지배하는 무한 경쟁의 정보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근자에 걸프전과 보스니아의 군사 작전에서 보여주었던 지·해상 전력의 직접 전투 이전에 원거리에서 항공 우주력을 이용한 군사 능력 발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병력과 무기체계 위주의 대량 파괴를 추구하던 물리적 패러다임의 재래식 군 구조에서 지휘부의 정보 판단, 의사결정체계 및 지휘체계를 중시하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정보화군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정보화군이란 정밀타격 능력을 비롯한 전자기 공격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적의 정보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지휘부의 지휘 능력을 마비시키며 아군의 정보 활동, 지휘부의 의사결정 및 작전 지휘를 원활히 하도록 보장하는 능력을 보유한 전력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보화군 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항공 우주력이다.

앨빈 토플러는 "서로 경쟁하는 많은 나라의 근대가 미사일과 인공위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을 못본 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노릇으로, 광활한 우주는 미래 전쟁형의 핵심 요소이며 우주는 전쟁의 네번째 차원을 추가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세기에 국가 보위를 위해 강력한 항공우주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칭되는 무기, 즉 상대방과 동일한 형태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응하는 「대칭 전략」이 보편적이었다. 즉, 군사력 투자가 있어서 적의 지상군 전력에는 아 지상군 전력으로 대응하고 적 해군력에는 아 해군력으로, 그리고 적의 공군력에는

항공 우주시대의 공군의 위상(1)

아 공군력으로 반격한다는 전략 개념이었다. 하지만 걸프전 이후에는 「비대칭 전략」이 보다 더 보편화되고 있다. 비록 지·해상군이 전형적인 지·해상군 전투를 통해 전쟁에서 적을 무찌른다 할지라도 그 같은 전쟁 방식은 무수한 시간, 자원 및 인명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만일 적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해 온다면 아측은 이를 지상군 전력으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력으로 적 지상군 전투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아 지상군이 진격하여 상황을 접수하는 비대칭 전략이 선호되고 있다. 해상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전통적인 2차원 전장은 항공 우주력을 사용하는 4차원의 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과거 대북 위협 위주의 군사 태세를 유지했던 「파라잡기 식의 군사력 양성」 개념에서 정보화 패러다임에 의한 정보화군으로 변화하기 위해 「임무와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양성」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항공 우주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래전 양상을 고찰하고 미래전에 적합한 공군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항공 우주시대에 있어서의 공군의 위상은 이러한 군사변화의 시대에, 향후 약 20년 정도의 미래의 전쟁 상황을 예측하고 이 시기에 있어서의 공군력의 역할을 짚어 보고자 하였다.

II. 본론

1. 미래전 양상

고대 및 중세까지는 주로 식량 약탈이나 노예를 획득하기 위해 원력에 의한 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산업화에 힘입은 근대에는 영토 획득이나 경제적 속국을 만들기 위한 전쟁으로 육지 및 바다에서 지·해상군이 선형전투 중심의 전쟁 우세를 추구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 전쟁은 공중 공간에서 항공공력의 활동을 보장하는 공중우세를 추구하였다.

미래 전쟁은 정보화 패러다임에 의거한 정보화군이 적의 C³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gnizance)을 정밀타격 능력으로 마비시키고, 자국의 C³ISR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정보 우세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전은 총검류가 아닌 전자병기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또는 Hacker들의 컴퓨터 침입) 등에 의해 적의 통신과 지휘 중추 및 무기체계의 작동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정밀타격 무기체계로 적의 주요 부문을 마비시켜 전쟁 수행 능력 및 의지를 말살시키며, 아군의 정보 활동과 지휘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관건으로 대두

될 것이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것으로, 지금에 와서 정보전이 전쟁의 주요 영역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미래의 정보전이 과거와는 달리 전쟁에 보다 근원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전쟁 형태의 수행 방법이 예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래 전쟁 수행 방식은 다양한 목표 공격에 적합하고 정확성이 급속히 향상된 무기체계의 도움으로 인명과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C³ISR에 의해 적의 의도와 중심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전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최소화된 각각의 전력은 C³ISR에 의해 유기적인 통합체로 구성되어 중앙집중적 또는 분권적으로 필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용되고, 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동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전의 형태는 사전 경고도 없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 침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쟁의 영역과는 매우 다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국방력은 누가 먼저 미래체제로 진입하는가에 따라 전력의 우열이 결정되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남보다 먼저 정보화군 구조를 완성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19세기 말, 산업시대의 거센 물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대가를 우리는 20세기 중반까지 혹독하게 치렀고, 20세기 말까지 이르러 겨우 산업시대식 군을 건설하게 되었다. 일본의 명치 유신은 산업시대의 물결을 정확히 예측하고 국가의 체제를 미래 대비체제로 바꾼 사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일본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산업시대식 군사력은 또다시 낙후된 전력으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의 정보화를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1세기에 다가올 미래전 양상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밀타격 능력의 향상

현대 전쟁 수행 양상은 항공기, 미사일 및 포 등으로 적의 병력과 장비를 대량 파괴하여 적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힘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하였으며, 전쟁 비용과 인명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첨단무기의 정밀타격 능력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서 미래의 전쟁 양상은 고비용의 대량 파괴보다는 정밀타격 능력을 이용한 적 중심의 마비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과거 전쟁별로 폭탄 투하량을 살펴보면, 2차대전시는 300만톤,

한국전 39만톤, 월남전 775만톤, 걸프전시는 8만 4천톤이었다. 이를 하나의 군사 목표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된 소모량으로 비교하면, 2차대전시 환약한 B-17은 4,500여 회 출격에 9,000톤의 폭탄을 투하(3,300ft의 정밀도)하였고, 월남전에서 사용된 F-105는 95회 출격에 190톤의 폭탄을 투하(400ft의 정밀도)하였다. 특히 걸프전에서 환약한 F-117은 1회 출격에 1톤의 폭탄을 투하(10ft 이내의 정밀도)하여 하나의 군사 목표를 파괴하는 정밀타격 능력으로 발전되었다. 걸프전시 투하되었던 무기 중 총 투하량의 9%였던 정밀 무기가 결과적으로 전략적 목표물의 42%에 손실을 입혔으며, 이는 정밀타격 능력의 중요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전쟁은 국가의 전쟁지도부(Leadership) 등을 공격하기 위해 야전군(Fielded Military)부터 공격하여 장벽을 무너뜨린 후 병참선, 주요 생산시설 등을 공격하였으나, 정밀타격 능력의 발달로 말미암아 점 표적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군력을 이용하여 지휘부부터 공격하는 것으로 순위가 바뀌어 가고 있다. 발전 중인 미 육군의 교리도 "깊이 있는 동시 다발적인 공격이 미래 군사 작전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실례로 걸프전 당시 최초의 공격은 이라크의 지휘부인 C³로서 이라크 바그다드 통신 센터부터 공격이 개시되었고, 두번째는 전기와 석유 시설을 공격하였다. 이로써 이라크 야전군은 지상전 개시 이전에 이미 통신망의 두절과 보급품의 단절로 마비되어 버렸으며, 이로써 걸프전에서 최소의 희생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미래전은 보다 향상된 정밀타격 능력으로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는 주요한 점을 들 것이며, 이 능력은 정보화전 상황에서 가장 중추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한 전력은 바로 항공 우주력이다.

나. 작전 목표의 신속화

C³ISR 체계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미래전의 작전 목표는 정보 수집, 지휘부의 지식 습득, 의사 결정, 명령 하달에서 군사력의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

첨단 정보체계는 군사 위성을 이용하여 24시간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며 수집과 동시에 지휘부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실시간 전달체제로 발전된다.

지휘부는 첨단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휘 자동화 체계로 명령 하달에서부터 군사력의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이다.

(2면에서 이음)

그러므로 미래전은 적의 작전 템포를 늦추고 아군의 작전 템포를 보다 신속히 보장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며, 이러한 작전 구도에 가장 부응하는 전력은 바로 항공 우주력이다.

현대 군사 이론은 전쟁을 戰略的(Strategic), 作戰的(Operational), 戰術的(Tactical)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쟁의 전략적 수준은 적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지를 더 이상 갖지 못하도록 적의 핵심적인 능력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전쟁의 작전적 수준은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 전구 또는 작전 전구에서의 군사력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술적 성공이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

전쟁의 전술적 수준은 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과 직접적으로 대치하여 전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전쟁에 있어 전장 구성 형태를 개관해 보면, 제2차 세계대전(雷擊戰) 이전까지는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운용이 확연히 구분되었으나, 항공기, 전차, 무선 통신이 운영된 독일의 雷擊戰 수행 이후 항공기가 전략적 목표로 해당하는 산업 시설이나 작전 지휘체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작전 수준의 지상 부대 운영을 지원하고, 과거 전술적 차원의 부대(기갑 사단)가 作戰 戰區(Theater of Opera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무선 통신은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들이 전술 부대 지휘관들과 직접 교신을 통해 상황에 따른 부대 전개를 위한 등 전장 구성에 있어 戰略的, 作戰的, 戰術的 수준의 운용에 일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점전의 경우 C₃I 체계 운영, 공중 전력을 중심으로 空·地·海 다차원에서 戰略的, 作戰的, 戰術的 수준에 상호 작용을 미치는 영역이 현격히 확대되어 미래 전장 구성 형태를 암시해 주었다고 하겠다.

미래 전쟁은 항공 우주력, 정보체계, 空·地·海 합동 전력의 다차원적인 집중과 치명성이 증대된 정밀 유도 무기의 등장으로 보다 깊은 중심지역을 타격하게 되는 등 戰略的, 作戰的, 戰術的 수준의 군사 활동이 보다 중첩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항공 우주력은 감시 능력과 활동범위 등 전략적 수준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밀한 공격 능력이 신장되어 戰略的, 作戰的, 戰術的 수준에서 보다 깊고 넓은 영역을 담당할 것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작전적/전술적 수준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전략적 수준의 전쟁만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 패러다임에 의한 미래 전쟁은 전술적, 작전적 및 전략적 수준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될 것이다.

라. 우주 공간의 군사적 이용 과거에는 우주 시스템이 단지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을 지원하는 일을 보완했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과거 10년 동안 반전되어 많은 지상 시스템이 현재 우주 시스템에 대한 예비 시스템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통신, 기상, 탐방, 경찰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우주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항공기가 활동하는 공중 영역에서는 체공 시간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반면, 우주 영역에서는 위성이 계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활동하므로 지속성이 존재한다.

군사 위성의 등장은 전지구 차원의 실시간 통신과 이동하는 군사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타격체계, 우주 폭탄 및 우주 미사일 등의 개발은 적 인공위성 및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미래전에서의 우주 영역은 최근 정보의 주 획득원으로 부상하였고, 정보화 패러다임에 의한 전쟁의 최일선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마. 무기체계의 첨단 과학화 개발 중인 전투용 로켓은 고위협화력의 전선을 정찰하고 정보 수집과 표적 발견은 물론 불발 탄두의 회수, 뇌관 제거, 병함 지원, 생화학 오염하의 작전 수행, 기뢰 제거, 해저 감시 장치 설치 및 로켓 결사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텔스 기술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는 적진을 자유 자재로 비행하면서 신호 정보, 다중 및 하이퍼 스펙트럼 영상 획득, 통신 및 데이터 중계, 환경 측정, 심리전 및 대미사일 요격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열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체계는 번개같은 섬광으로 표적을 파괴시키므로써 현재의 물리적인 미사일 및 포병 무기체계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레이저, 마이크로파 및 입자 빔 등으로 구분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기존의 탄환 개념을 바꿀 것이며, 최대 장점은 기존의 전자 탄환이 초당 1.6km/초를 감당하면 초당 30만km에 달하는 속도로 이동 표적에 대한 직중률이 매우 높고, 또한 표적에 대한 손상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현재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전은 무인 및 비살상 첨단 무기의 등장으로 인간을 이용한 전쟁보다는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무기체계를 마비시키는 첨단 과학 무기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2. 항공 우주력의 핵심 능력

앞장에서 미래전의 양상을 정 보전적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한 미래전의 세부 양상, 즉 정밀타격 능력의 향상, 작전 템포의 신속화, 전쟁 수준의 구조 변화, 우주 공간의 군사적 이용, 무기체계의 첨단 과학화 등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전쟁 양상에 걸 세력은 바로 항공 우주력임을 알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항공 우주력의 핵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항공 우주력의 용어에 대해 정의해 본다. 항공 사상의 선구자 듀헤는 항공력(Air Power)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상력, 해상력과 비교되는 공중에서는 전투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미 공군의 역사 사전에서는 항공력이라는 용어 대신 항공 우주력(Aerospace Pow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항공 우주력이란 공중(Air) 및 우주 공간(Space)을 통하여 군사적, 상업적 혹은 인도적 작전을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타 여러 정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항공 우주력은 "지구 표면 상공의 4차원에서 운용될 수 있는 모든 비행체 또는 비행체에 의한 군사력을 뜻하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유·무인 항공기 외에 지대공, 지대지, 탄도 미사일, 인공위성 등의 우주 비행체도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 우주력은 공군 전략 구상을 위한 핵심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 방위를 위한 전체 군사력에 기여하는 능력이다. 21세기를 향한 항공 우주력의 핵심 능력을 살펴보면 정보 우세, 공중 및 우주 우세, 정밀 타격, 그리고 기민한 군수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정보 우세 정보 우세는 현대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참모 기능이 아니라 작전 그 자체인 것이다. 적의 의도, 능력,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전투의 기본 요건이다. 그것은 적의 자산과 군사 능력, 그리고 저항하려는 의지를 거부, 저하, 지연, 파괴시키므로써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참조점이나 나침반이 없는 잠비, 귀머거리, 방어리에 불과하다.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와 언덕 너머를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들은 중요할 뿐 아니라,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항공 우주력은 유·무인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한, 특히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적합한 전력이다. 즉, 적대 세력들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전력인 것이다.

정보화군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전에서의 정보 우세는 전쟁 승리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전력은 항공 우주력이다.

나. 공중 및 우주 우세 공중 및 우주 우세는 성공적 군사 작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공중 우세가 없으면 공군은 전략 공격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수한 희생을 치러야 하며, 지·해상군도 마찬가지이다. 공중 및 우주 우세는 우군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군사 작전 효과를 현저히 향상시킨다.

공중 및 우주 우세는 국가 지휘부에 언제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며,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를 행사 및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준다. 남이 넘볼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전장 우세를 달성,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정보, 항공, 우주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다.

미래전은 먼저 일방과 비슷하게 전선이 불분명한 소규모 재래식 전쟁에서부터 각종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과 대규모의 재래식 전쟁, 그리고 핵무기 사용이 고려되는 갈뎡한 해전까지도 가정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든 그 상황에 적절한 공중 우세의 유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근자에 일어난 결점전, Pin-Prick 작전 등에서 본 바와 같이 공중 우세의 확보가 여전히 전쟁 및 작전 승패의 판타지임을 알 수 있다.

다. 정밀타격 정밀타격은 요구되는 군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군사 목표 이외의 파괴 등의 우발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정밀 무기의 센서와 유도 체계들은 전자 광학, 열 추적, 레이더, 레이저, 반방사파, 함법(지구 폭락 레이더와 지구 함법 장치) 기술 등을 포함한다.

정밀 타격의 실질적인 감점은 표적을 파괴시키는 효과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전력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군수 소요, 비용 및 전개 기지와 병력들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어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정밀타격은 비핵무기로서 핵무기에 상응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핵전을 방지하면서 적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공격하게 되면 정밀 승패에 결정적 일 수 있다. 정밀타격 무기는 항공기 장착 무기, 미사일 등 사실상 항공력을 지칭하는 것들로써, 정밀타격 능력은 정보비교 결합될 경우 군사적으로 혁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점 전쟁은 정확한 목표 선정, 주문 파괴(Customized Destruction), 그리고 간접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고안된 하이테크 무기들이 동원되어 바그다드 내의 목표물과 이라크 공군부, 정보국 건물, 내부부나 의회 건물 등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추적, 파괴함으로써 정밀타격에 의한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 준 전쟁으로 미래에 수행될 전쟁 방식을 잘 암시해 준 전쟁이라 볼 수 있다.

라. 기민한 군수 지원 기민한 군수 지원이란 전반적인 지원 요소들의 지원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대응성 있는 지원을 의미한다. 전장에서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민한 지원 체계는 군 지도부에 더욱 향상된 전투 능력을 제공한다. 항공 우주력만이 거리, 속도, 전개 능력, 융통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생존성있고 신속,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다.

민간 수송과 첨단 수송기를 이용한 물자의 이동과 축적은 수요자를 위한 전장보급을 향상시키며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적 능력을 증대시킨다. 또한 체계적으로 단순화된 군수 지원 체계는 군 지도부에 신속한 전력 운용과 보다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고 적에게 표적 노출을 최소화한다.

제2건국운동의 현주소와 그 기저



정해영(기)
· 평통 자문위원

우리 한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자 최우선의 명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누구나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태껏 구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과연 무엇일까? 더구나 올해가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5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이므로 그 감회가 더 한층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현 난국이 자유수호를 위한 6·25 한국전쟁 이래의 제2의 국난이나 다름없는 재난임을 상기할 때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가 곧 통일 조국의 기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대칭적 모순이 크고 열차가 없고 역설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랜 민주화 과정을 겪어 오면서 지대한 엄청난 국력소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기조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하나를 제대로 가꾸어내지 못한 주체성 결핍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을 사랑하는 큰 정치란 어디까지나 인애에 바탕을 둔 여야간의 GIVE AND TAKE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합의와 타협과 견제로 저비용·고효율의 제반 국정 생산성을 시범적으로 선도해 가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을 사랑하는 큰 정치의 척도는 만민에게 이로운 대의의 공평성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성에 기저를 둔 책임정치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묘년 새해를 여야의 충돌로 맞이한 현실 정치의 구태의연한 당쟁위주의 추태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야말로 국가 이익을 저버린 물지각과 주체성 상실로 이어지는 정치적 구심력 부재현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회합만 대북 안보정책을 비롯한 구제불능에 가까운 채무국 신세임에도 이에서 탈출하는데 근간을 이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입법활동에는 여권단독 처리로 그 줄속이 노정되어 비재정 문제를 거론하다가 이를 대대적 축출로 가닥을 잡았다는 정부측 보도를 묵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보도된 한국은행 추정(98. 12. 25.)에 의하면 "국가부채는 지난 해 47조원에서 올해 73조원으로 55.6%나 늘었으며, 2002년에는 1백6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의 핵심인 즉 처럼 민주화 항쟁의 걸림돌같이 여겨 온 개발독재 정권에 소위 문민정부로 이행한 연후의 나라 형편이 오히려 제2의 국난을 자초한 꼴이 되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는 딱한 현실임을 상기해 볼 때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력을 창출해 내야 할 때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간발의 표차로 심심한 국민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들고 나온 배경과 명분과 답이 있다. 더불어 다름아닌 평화적 조국통일의 성취라는 원대한 VISION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재통일 문제는 어디까지나 UN 감시하에 총선거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이어온 우리 국민정부의 주체성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간에 정치과잉 현상과 그 난맥상에서 벗어난 국가적 기강해리로 신중되다시피 해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체성 회복을 국민적 합의의 바탕으로 공감대를 증폭시켜 나가면서 크게는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민족통합으로 이어가게끔 구심력을 갖춘 정치력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의 국난극복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소위 "제2의 건국"이라는 현 국민정부의 문제의식과 개념설정에 관하여 몇 가지를 점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일에 정부당국이 출선수범하여 ①실용적인 정치·행정 최우선 개혁 ②관리금융체질의 철폐 ③대 국민공약의 정직한 이행 ④고비용·저효율의 주범인 정치과잉종퇴지양 ⑤법치주의의 공평한 적용 ⑥구정연휴를 줄이고 UN의 날 부활

둘째: 신생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그 정체성은 다를 아닌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뿌리를 깊이 내린 주권재민의 주체성을 행사해 온 민족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기저를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되리라는 점이다.

다만 UN의 산파역으로 1948년 8·15 광복절에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출범한 신생 대한민국이 그 당시 UN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한 북한지역을 미수복지구로 남겨둔 채 인구 비례에 따른 북한측 의석수를 비워 놓고 회구성과 신정부 수립을 선포한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가일층 분발할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UN의교의 강화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성취를 위한 전략적 우위의 산실임을 간파해서서 안일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북한측에서는 점령군인 소련의 지원을 받아 순 스탈린식 1당 독재체제의 공산정권을 동년 9월 9일에 급조하여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를 마련해 가지고는 스탈린의 사후를 받아 정권준비에 광분하는 일방 기만전술로 평화적인 정치공세를 펴는 척하다

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를 기해 기습 남침 전면전쟁을 도발하게 된 배경이 구 소련연방의 소멸과 함께 백일하에 공개되어 온 것이 또한 작금의 현실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6·25를 민족해방전쟁인 것처럼 오도해 가면서 전범자의 과수인 김일성의 남침도발을 일대 영단이라고 주장해 온 그릇된 민족사관을 가지고 분명한 사과도 없이 버젓이 한껏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 전반에 걸친 언론플레이로 반공사적용 왜곡, 변조해 가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부상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제2 건국의 현주소가 아닌 뿐더러 그 기저가 단순한 진보적 개혁세력으로 메워 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문제임을 제기해 둔다.

왜냐하면 이를 방치할 경우에서 필연적으로 밀어닥칠 색깔론에서 초래될 분열과 혼란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어언 건국 51주년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그 정체성에 입각한 정당담당한 주체성을 구심점으로 삼아 애국적 결집으로 승화시켜 나가다면 1차적인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은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민족 대통합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섬서의 교훈을 몇 줄만 인용하여 증빙에 시달리고 있는 주체성 살리기의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잠언 15:34에 보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동 28:2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동 29: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동 29:4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셋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의 기본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조선정책이 그 기저를 이루어 한국 배제노선을 고수하려는 북한이 갈려 있을을 결코 간파해서서 안되는 것이다. 최근 한 예로 특정 민간인의 방북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이나 나진 신봉지구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민간차원의 기업가나 종교지도자들의 선심방북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리만 챙기고 있는 현실임을 똑똑히 간파하여야 한다.

한편 대미수교와 대일수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바람팔 외교에 맞들 들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행사를 계속하면서 체면 불구하고 보상의 극대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실체임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의 투명성

보장을 한껏 늦추어 가면서 미사일이나 인공위성발사 위험 등에 그치지 않고 "조선반도에 전문운용하면서 최근의 평양방송이 선수를 치고 보도하고 있는 판국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한 구절만 인용해 보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치사는 분노를 안고 총검과 복수의 서슬 퍼런 총창을 틀어잡아 전쟁이 일어나면 총검으로 침략자들을 한번에 쓸어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자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1999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대변동의 해로서 남북관계는 기존의 위기상황을 뛰어 넘을지도 모를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의 해를 이룰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강치 지하 핵시설 여부를 사찰하는 조건부로 증유지원 예산을 6월 말까지 쓸 수 있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있지만 북한측이 불응할 시 더 이상 북한측 요구대로만 끌려 다니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2 건국운동의 현주소와 그 기저"는 UN의 산파역으로 탄생한 신생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 온 법국가적 주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있음을 논술하였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선 건전한 민족사관부터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하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반 국사가 처리될 때 보다 설득력은 더욱 포용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UN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를 미결의 장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결할 책임이 UN의 숙제로 남아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대 UN의 교전력이 긴요함을 제기하였다.

미수복지구에 대한 총선거 형식이나 동시선거 논의나 군축문제의 선행과제 등 매우 바람직한 남북대화의 창구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고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모든 과제와 통일심업이 결국 전체 국민의 대화합과 번영을 동반할 수 있는 인애에 바탕을 둔 애국애족 우선의 정치력대비가 공평과 정직이 그 기저로 자리잡도록 구심력있게 협력하는 일인 즉 제2의 건국운동의 기저가 되어야 함을 감히 밝혀두는 바이다.

'98년 10월 20일 水原市 平統諮問委員 39名은 金日成 이가 나의 목 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白翎島에 2/13일에 걸쳐 安保探訪 를 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수원을 출발 관광버스를 타고 水仁高速道路를 따라 仁川 선착장에 도착하니 8시가 조금 지났다. 여러 도시로 가기 위한 船客들이 단풍을 연상케 하는 원색의 옷차림으로 분주하기 짝이 없다.

패속징 아일랜드 호에 승선하여 정확히 9시 30분에 고동소리를 내며 인천항을 출발하였다. 東海는 翎島, 南海는 마라도, 西海는 白翎島가 가장 먼 섬. 休戰線 때문에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다보니 더욱 멀다. 1시 30분에 도착한다는 배는 2시간을 연착하여 3시 30분에 도착했다. 그래도 선주측에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말 한마디가 없다. 小南島와 大南島를 거쳐 푸르고 푸른 망망대해를 지나니 마음이 탁 트이어 大人이 된 듯한 기분이다. 뱃객가 바다를 좋아하는 理由를 알 것 같다.

白翎島에 도착하니 세계에서 돌밖에 없다는 天然 환주루가 눈에 들어오고 부둣가에는 나지막한 집들이 웅기쭈기 모여있고 배를 타러오는 사람,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특히, 열륙두늬 군복 차림의 군인들이 많다. 대부분이 해병대 장병들이다. 이 섬에 하나밖에 없다는 40석의 복사골 관광버스를 타고 속도로 향했다. 31년 전 공군 309관제대를 방문했을 때보다 별 발전한 것은 없지만 2차선 도로가 전부 시멘트 아니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었다. 먼 소재지 진촌리의 그린 파크호텔에 집을 풀었다. 백령도는 동경 124° 53', 북위 37° 52' 지점에 위치해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229km 떨어져 있으며 뱃길로는 136마일 거리에 있는 인천광역시 용진군 백령면에 속한 넓이 45.84평방km의 우리나라 섬 중 14번째 큰 섬이었으나 최근 화동과 사곳 사이를 막는 간척지 매립으로 약 1백만평이 넓어져 여덟번째로 큰 섬이 되었다. 총 17개 里, 1,500여 家口에 4,300여 명의 住民이 居住하며 軍人은 5,000여 명이니 軍人섬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13년 행정구역 개편시 잠연군 백령면으로 되었으며 1945년 국토가 분단됨에 따라 용진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백령도를 訪問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대개가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섬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과 두번째는 평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한다. 왜냐하면 백령도 곳곳에는 철물같은 요새화가 되어있고 주위로 해병대가 지키고 있다. 특히나 백령도 주민들은 누구나 총을 쓸 수 있고 여자 예비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고등학생도 군사훈련을 익혀 유사시는 전투요원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 같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좌경세력과 친북세력이 만조상태에 이르러 안

새색시 속살처럼 희고 깨끗한 섬

白翎島 安保探訪記

보무풍지대가 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런 섬이며 6·25당시 온 국민이 조국수호에 헌신했을 때를 연상하기도 했다. 김일성의 남침을 민족통일 해방전쟁으로서 김일성은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민족통일의 사명감을 가졌던 위인이라 미화하고, 미군

과 한국군의 38선 반격 돌파는 공격적 팽창주의 발로로 매도하는 최장집 교수(청와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불순한 논문이 나돌고 '68년 12월 10일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다가 죽을 담판 이승복의 기사가 조작이라고 하는 일부 언론인이 나오



북한땅을 배경으로 한 필자



바다 건너 북한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다.



해금강이라 불리는 백령도의 두문진 기암괴석

며 금강산 관공에서 영남대 유홍준 교수가 삼일표관공 이후 장군대에서 북한의 대표적 노래인 「赤旗歌」 「金日成將軍의 노래」를

부르고 북한 안내원과 어깨동무를 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하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정부나 보안 계통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바 크다.

백령면 진촌리 1184번지 山頂에는 1961년 8월 15일에 건립한 반공유격전적비가 서 있다. 1950년 중공군 참전으로 1·4후퇴 당시 북한의 많은 주민이 이곳으로 피난왔다. 1951년 2월 28일 유엔군 관찰하에 8,000여 명이 반공유격대(8240부대 일명 동키부대)를 조직 황해도 일대의 기습작전과 백령도 수호에 많은 전공을 세웠기에 그 전공을 기리고 장렬히 산화한 516명의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윤보선 대통령의 휘호와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의 협조로 이 비를 건립했다고 한다. 이때 전과는 황해도 일원의 기습작전 수행으로 복귀군 57명을 생포하고 적을 4,000여 명이나 사살했다고 한다.

백령도의 이름은 옛날 원님의 두남독녀가 가난한 선비와 사랑을 했는데 원님이 이 선비를 백령도 섬에 귀양을 보내자 그 처자는 오매불망 선비만을 생각하며 슬퍼하자 흰 새가 소식을 전함으로 인연을 맺었다는 전설에서 백령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어쩌면 백령도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임에는 틀림없다. 이 섬은 북한의 비행물체를 감지하고, 서해로 침투하는 간첩선을 감시하고, 어부들의 어장도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지인 섬이다.

붉은빛 용광로
태양이 솟을 즈음
여기 백령도 많은 바람이
술술불어 당신의 가슴을 시원
케 하고

갈매기 소리
끼룩끼룩 울때
까나리 어선 출항
만선을 기다리는 아낙네
살기좋아라 인심좋아라
우리섬 백령도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새색시 속살처럼
희고 깨끗한 섬
나 여기 살아
찾아오는 당신을 맞으리

우리 일행은 해병대 흑룡부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부대 현황을 청취했다. 그리고 제2의 해금강이라고 할 만큼 기암괴석의 두문진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삼면의 끝(백령도, 마라도, 독도)에 있는 통일기념비 앞에서 평화통일의 기원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졌다.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통일관을 확립하고 수원으로 돌아왔다.

(사무총장 강용구(6기))

'98년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의 최우수 사격조종사에 최연소의 나이로 처녀 참가한 제17전투비행단 152대대 소속 成在庸 대위(29세, 공사41기)가 선정되어 영광의 TOP GUN으로 등극했다.

'98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공군 전투조종사 가운데 최고의 영예인 TOP GUN을 차지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152대대 成在庸 대위는 수상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아직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결과보다는 충실한 준비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평소 생각이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 같다."며 TOP GUN이 되기까지 조연을 아끼지 않은 대대장님 이하 대대 전 동료 조종사와 항상 최상의 항공기 상태를 유지해준 정비사, 무장사, 그리고 관제사 등 후방지원요원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특히 成대위는 "TOP GUN으로 선발되었다는 명예보다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적이 도발해 오더라도 즉각 응징하여 엄격에 격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했다.

F-4E 팬텀을 조종하여 전술사격 1,000점 만점에 883.3점, 공중요격은 1,500점 만점에 1,470점이라는 탁월한 사격기량을 선보인 成대위는 공군사관학교 41기로 '93년에 입관하여 졸업 152

전투비행대에서 근무해 왔으며, 입관 이래 총비행시간 746시간, 주기종인 F-4E로 502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成대위는 사격 당시 상황을

"공중요격에서 70여 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밖에 있는 적기를 발견하여 10초 이내에 단 한번의 사격으로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고고도 정밀폭격시 시속 900km

의 속도로 약 3km 이상의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여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은, 남산의 15배되는 높이에서 공알보다도 작게 보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정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사격"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말했다.

한편, 成대위와 같은 편조(비행에서 2대의 항공기가 비행하는 포맷)에서 사격대회에 참가하여 신인상을 수상한 孫永復 대위(29세, 공사41기)는 成대위의 친동서지간으로서 생도시절 成대위가 처제를 소개시켜 주어 같은 동기생끼리 동서지간을 맺고 있는 사이이다. 이번 成대위의 TOP GUN 등극은 동서지간의 완벽한 팀워크로 이루어낸 합작품이라고 주위의 동료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成대위는 아울러 "지난 걸프전에서도 입증되었듯이 현대전의 승패는 공군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번 사격대회를 통하여 정밀폭격 능력 및 적기격추 능력이 한층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며, 유사시 전 쟁승리의 주역이려는 높은 자부심으로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며 평소 훈련이 실천과 직결된다는 의의를 되새겼다.

이번에 최연소로 TOP GUN에 등극한 成대위는 서울출신으로서 서울 고령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4형제 중 장남으로 지난 '95년 5월에 문예란 씨와 결혼하였다.

母軍 · 母校 短信

'98 TOP GUN, 成在庸 대위
처녀출전, 최연소로 TOP GUN 등극
같은 편조의 孫永復 대위 신인상 수상



공사, 보라매 자매 탄생!

- 제51기 여생도 수석항격자 강정미 생도, 언니인 50기 강은미 생도에 이어 공사 입교
- "언니와 함께 조국영공수의 기수가 되겠다."

"형님은 빨간 마후라 아우는 활주로 하나 우리는 보라매 형제 사라는 약한 사이" 이것은 공군에서 애창되는 군가인 '보라매 형제'의 가사 내용이다. 지금까지 3군 사관학교에서는 많은 형제 동문들이 배출하여 국토방위의 간성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2월 20일(토) 공사 성무면 병장에서 거행된 제51기 사관생도 입교식에서 전교 50년 이후 처음으로 자매 동문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입생 강정미(姜正美, 18세) 생도와 2학년으로 진학하는 언니 강은미 생도(50

기)이다. 화제의 주인공인 강정미 생도는 수능점수를 포함하여 총점 1,000점 만점에 956.7점을 획득하여 여생도 수석의 영광도 안게 되어, 강안은 자매 보라매 탄생과 더불어 결경사를 맞기도 하였다.

강정미 생도는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푸른 하늘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공사에 먼저 진학한 언니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관생도의 모습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동등

한 기회,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각종 장학혜택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군사관학교를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엄격하고 절제된 생도생활을 통해 나약해 보이는 나의 모습을 강하게 하며, 평소 품은 뜻을 공군에 펼치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언니인 강은미 생도는 후배가 된 동생에 대해 "나약하고 여러개만 보이던 동생이 힘든 가입교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엄격한 생도생활로 자랑스러운 보라매로 다시 태어났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까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혀 동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 주었다.

공군 최초 부녀 전투기 조종사 탄생예고

- 전투방면만 하양규 대령 딸, 공사 제51기 생도로 입교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딸이 제51기 공군사관생도로 입교, 우리 공군 사상 최초의 부녀 조종사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2월 20일(토) 공사 성무면 병장에서 거행된 제51기 생도 입교식에서 하유미(河有美, 18세, 대구 정화여고 졸업) 양은 전투발전단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 하양규(河王圭, 45세, 조종) 대령의 뒤를 이어 정식 사관생도로 입교했다.

14.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하고 지난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하유미 생도는 "어릴 때부터 전투기를 조종하며 영광을 지키는 아버지를 동경해 온 것이 공사를 지원한 동

기"라며 "아버지와 함께 전투기를 조종할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 생도는 또 "아버지가 현직 대령이어서 모든 면에서 부담스럽다."면서도 "여생도 입교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고 생도생활에 임하고 졸업" 양은 전투발전단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 하양규(河王圭, 45세, 조종) 대령의 뒤를 이어 정식 사관생도로 입교했다.

F-16 전투기를 포함, 22년의 화려한 조종경력을 갖고 있고 '89년 영예의 '탑건'에 선정되기도 했던 하 대령은 "경험삼 남자도 하기 힘든 과정이어서 딸의 공사지원에 대해 고민했던 게 사실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이를 승낙했다."며 "유미가 유능한 조종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6면에서 이음)

● 臨時理事會 開催

지난해 12월 29일 空軍會館에서 臨時理事會를 개최한바 會計報告에 이어 審議事項으로 空士開校50周年을 맞아 다채로운 記念行事를 遂行함에 있어 豫算이 不足하여 支援하기 위해 各期生會(1~26期)에서 壹百萬圓씩 募出하기로 決定. 그리고 作戰司令部 訪問과 事務室 移轉을 2월 中旬에 하기로 決意하였다.

● 作戰司令部 訪問

지난 1월 13일 本會 理事 中 32名이 空本 BUS로 作戰司令

部를 訪問하여 作戰司令部에 關한 Briefing을 申請하고 TACC와 U-2를 見學하였다. 특히, 對北傀空軍에 대한 대비태세는 완벽하였다. 마치 장남과 싸우는 꼴이어서 만족하였고 作戰司令部의 長丁의 發展상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제 하늘은 우리 空軍에 맡겨도 되겠다.

● 趙玉燦(4기) 教授는 21世紀의 航空機 開發이라는 책을 정년퇴임 기념으로 발간하였다. 책의 크기는 46倍版 洋裝으로 壹千部 發刊하였다.

己卯年 새해들어 空士 各 期生會長이 새로 選出됐다. 會長 當選을 祝賀합니다.

- 홍우회(공사 1기) 회장 金永煥
- 이공회(공사 2기) 회장 李榮壽
- 삼정회(공사 3기) 회장 孔恩彦
- 일성회(공사 6기) 회장 李載奎
- 팔진회(공사 8기) 회장 金應泳
- 은하회(공사 9기) 회장 金明洙
- 비심회(공사 11기) 회장 崔樂永
- 성의회(공사 15기) 회장 崔星烈

알림

★ 총동창회 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8-1
TEL : (02) 823-1091
FAX : 823-1092

★ 보라매회 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8-1
TEL : (02) 825-8461, 8462
FAX : 825-8460

創意力 開發에 關한 考察(I)



曹正基 교수(7기)

I. 緒 論

人類文化의 歷史는 그 대로 人間의 創意的 能力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創意力은 人間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基礎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動物의 상태에서 世界를 지배하는 萬物의 頂上으로서의 위치로 人間을 끌어올린 것은 다름아닌 想像力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想像力은 人間으로 하여금 우주를 征服하게 할지도 모른다.

原子力의 개발은 거의 그것을 征服할 전망이 없었던 것에 대한 人間 想像力의 승리였다. 또한 最近에 이르러 創意力 開發의 문제는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教育을 通하여 創意力의 開發은 充分히 可能한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能力의 開發은 眞實히 必要로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要請에 힘입어 오늘날 創意力(Creativity)에 관한 研究가 甚 활발해졌다. 이처럼 創意力이 各 分野에서 매우 重要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現代의 産業社會는 實源 以上으로 人間의 創意的 所産에 대한 기대를 加重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科學 産業의 발달 및 科學文明의 發達이 이룩한 豐요로운 社會로의 進入過程에서 상실되고 있는 人間性의 회복을 위해서 創意的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國家發展의 次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方法을 創出해 낼 수 있는 創意的 思考의 能力을 가진 高級人力의 양성에 관한 우리의 學校教育은 거의 속수무책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오히려 學校가 지니고 있는 文化風土는 創意的 開發을 저해하는 注入式 教育, 획일적인 思考方式의 強化, 記憶과 再生을 위주로 하는 評價方式 등을 지향하고 있기에, 教育 原來의 目的인 創意的性을 開發成시키는 活動은 물론 이를 許容하고 장려하는 風土조차 마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창의력의 기초개념, 창의력의 기능, 창의적 사고의 장애요소, 창의력의 개발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여 보려고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創意力의 概念

창의성의 概念規定은 學者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試圖되고 있는 창의성 개념의 接近 方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Guilford를 비롯해서 창의성을 지적능력(Intellectual Power)으로 記述하는 立場이며, 둘째는 창의성을 정의적 특성(Affective Trait)으로 기술하려는 Maslow의 입장이고, 셋째는 창의성을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Rossman, Wallas, Torrance 및 Gagne 등의 입장이다.

Guilford는 그가 제안한 知力의 三面圖(Three Faces of Intellect)의 모형에서 인간의 지적능력을 인지, 기억, 收斂的 사고, 擴散的 사고 및 평가의 다섯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이 중에 확산적 사고를 창의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는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란 문제를 날 줄 알며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방출할 수 있고 주어진 자료를 정의할 줄 알며 영성있는 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다.

2. 創意力의 要件

Guilford에 의하면 창의성의 첫째 요인은 사고의 流暢性(Fluency of Thinking)이다.

이것은 어떤 자극에 대하여 양적으로 풍부한 사물 개념을 출산해 내고 또 양적으로 풍부한 표현을 하는 능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위 산출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간단한 그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다른 사물을 聯想 圖作하는 圖形 流暢性(Figural Fluency), 주어진 자극에 관련이 있고 그 의의 혹은 暗示性에 따라 그것을 풍

부히 개념화하는 概念化 流暢性(Ideational Fluency), 한 자극 내용에서 그것과 類似하거나 반대되는 意味를 갖는 概念 또는 내용을 產出하는 聯想 流暢性(Associational Fluency) 주어진 條件下에서 풍부하고 自由로운 表現을 하는 表現 流暢性(Expressional Fluency) 등이 그것이다.

창의성의 둘째 요인은 사고의 독창성(Originality of Thinking)이다. 이것은 새롭고 희귀하고 총명한 아이디어나 관계를 산출해 내는 능력이다.

즉, 첫째는 統計적으로 희귀한 반응을 하는 능력, 둘째는 關聯이 먼 매우 간접적인 아이디어나 관계를 산출하는 능력, 셋째는 신기한 아이디어나 解決策을 考察해 내는 능력인 것이다.

보통 이러한 독창성은 어떤 돌연한 사태에 접했을 때나 書籍을 읽고 이를 要約해서 보고할 때 各種 視聽覺 器材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때 또는 유머를 통해서 나타난다.

창의성의 셋째 요인은 사고의 融通性(Flexibility of Thinking)이다. 이것은 다각적 다방면적으로 사고를 轉向하는 지적 특성으로서 思考對象의 습관적인 觀念에 구애되지 않고 傳統과 慣習을 脫皮하면서 폭넓은 사고를 하는 능력으로서 자발적 융통성(Spontaneous Flexibility)과 적응적 융통성(Adaptive Flexibility)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극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사고를 계속하여 해결책 혹은 아이디어의 범위나 類別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이며, 후자는 생산된 해결책 혹은 주어진 자극의 의미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많은 다른 관계나 다른 의미를 案出해 내는 능력이다.

이밖에 Guilford는 창의성의 요인으로서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 또는 내용을 補充·修正·完成하는 사고의 精巧性(Elaboration of Thinking)을 들고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상 요컨대 창의성의 요인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째로 자발적 독창적이며 고정적 전통적인 것에서 탈피하는 능력과, 둘

째로 既存하는 여러 자료 사이에서 새로운 결합 구성 또는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셋째로 어떤 목표를 향한 자기의 노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忍耐와 勇氣 등이라고 할 수 있다.

3. 創意的 思考의 段階

Wallas는 창의적 사고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준비(자료의 수집) → 解化(無意識의 精神作用의 進行) → 照明(解決策의 暗示) → 檢證(암시된 해결책의 검토 및 발견)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가. 準備期(Preparation) 주어진 또는 나타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지각하고 이해해 보는 단계를 말한다.

학교 교육의 지적 과정은 거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논리학과 현대의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체계적 검토 및 관찰, 분명히 정리된 질문과 그 해답을 찾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하는 활동이다.

나. 解化期(Incubation) 지각 또는 이해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찾아야 할 필요, 의욕은 일단 가졌지만 그러한 느낌이나 필요를 의식에 가지고 있지 않은 동안이 이 단계에 속한다.

이 부화기는 다시 돌로 갈리는데, 첫째는 매우 消極的인 단계로서 개인이 그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지 않는 때를 말하며, 둘째는 보다 積極的인 것으로 다른 사건 또는 일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자연 먼저 문제를 잊게 되는 때를 말한다. 부화기의 보다 가치있는 면은 이 둘째 단계인데 의식적으로 다른 일을 함으로써 문제를 부화하는 경험은 의식적으로 먼저 문제를 그냥 잊고 있는 상태보다 능률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벌려 놓고 미완성인 상태에서 휴식하는 동안에 먼저 문제에 관한 기발한 해결안이 떠오르기 쉽다는 것이다. Poincare, Archimedes 등의 발명이 바로 이 경우

에 속한다. 위의 휴식이란 정신적 휴식을 의미하는 데 정신적 휴식은 신체적 운동을 요구한다. 정신적 휴식을 위한 비자발적인 힘겨운 독서는 금물이다.

다. 照明期(Illumination)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지금까지 찾던 해문의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아이디어 출현의 직전과 직후에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은 문제 의식이 무의식(Unconsciousness)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Fringe Unconsciousness)으로 옮겨지는 현상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따라 관찰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암시(Intimation)'라고 부르는데 이 순수한 암시현상은 어떠한 감정적 色彩도 없는 상태에서 의식 표면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색채가 배제된 상태를 조명의 충분조건이라고 부르며 이 조건은 인간의 의식적 노력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

4. 創意力의 機能

가. 創意力을 構想하는 能力

問題解決에 제일 먼저 착상하는 것으로 創意力이 發揮되기 위해서는 먼저 構想이 되어야 한다. 構想은 想像와 靈感 또는 암시 추리 등에 의해 實現되는데 靈感(인스피레이션)이라 함은 問題의 대상과 一般化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對象과 同一化되기 위하여 열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先行條件 위에 순간적으로 意志의 作用이 문제해결 방법이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을 靈感이라 한다.

이는 論理的 思考가 아니고 直觀的 非論理的 思考에 의하여 創意的 思考에

(8면에서 이음)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헨리 포앙카레'는 人間의 精神活動엔 創意的 思考를 중단하여도 無意識 關係에서 思考活動을 계속 하고 있어 계시적으로 出現하는 '아이디어'는 無意識의 思考의 產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想像力에 의한 構想을 살 펴보면 想像力이라는 用語가 심리학자들이 고심 하는 막연하고 넓은 分野인 데 形態上으로 어떤 것은 創意的이나 여기서 確實히 해야 할 것은 空想과 想像의 問題이다. '空想'이라 함은 現實과 동떨어진 思想, 즉 具體的 象象을 主眼으로 하는 觀念의 活動에 있어 그 表象 結合이 意味하는 바가 現實 세계에서 存在하지 않는 것과 같은 結果를 취하는 것이다.

'想像'은 이에 반하여 중요한 精神 作用으로서 새로운 기계 등의 發明, 알지 못하던 것의 發見, 예술작품의 創作 등 現實性이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知識보다 더 중요한 것은 想像'이라고 말하였는데 知識이 創意的으로 應用될 때 가장 강하게 된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에이켄' 박사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자두뇌는 人間精神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할 수 있고 약간의 判斷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의 高等 精神機能 그중에서도 創意的 想像力은 결코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創意的 想像의 初期段階로서 예지적 想像을 들 수 있으며 日氣를 豫測하고 일을 決定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예지적 想像의 가장 고차적인 形態는 創意的 기대인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實現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實現되도록 노력하게 된다'고 '부처' 박사는 創意的 기대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機能面에서 創意的 想像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탐색의 기능이며, 또 하나는 發見된 것을 變化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意志와 노력이 합쳐져 나오는 想像이다.

이상과 같이 創意的이 새로운 것을 構想할 수 있는 能力으로 볼 때 想像力이 創意的을 나타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創意的은 空想이 아닌 現實 可能性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構想이 나타나기 전까지 는 줄기찬 意慾과 執念과 노력이 수반됨으로써만이 創意的은 새로운 것을 摸索하고 變化시켜 새로운 것을 構想하는 能力인 것이다. 그러나 摸索을 하는 데는 반드시 現在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기존의 것, 事實으로부터의 摸索을 포함한다.

나. 創意的은 豫見하는 能力

前節에서 創意的 想像力에서 예지적 상상력이 있음을 보았는데 豫見한다는 것은 통찰력과 감수성, 추리력 등의 機能에 의한 것으로 問題에 의한 감수 能力을 洞察하는데 힘을 주고 따라서 創意的에 힘을 주게 된다. '갈포드'는 감수성을 創意的 因子中 중요한 因子로 보았고, '푸르무'는 創意的을 '올바로 보고 反應하는 能力'이라고 말하였는데 洞察에 의한 감수능력을 創意的力에서 강조하고 있다.

흔히 創意的 開發 研究者들은 '어린이는 創造의 天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사에 어린이의 감각이 신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感覺에 의한 直觀의 考察에서 問題나 事實을 分析, 파악, 訓練시키는 洞察力의 作用이 예리한 면에서 作用될 때 創意的 思考가 나타난다.

'필러'의 洞察力에서 보던 진실한 問題의 解決 行動은 問題構成 要素간에 相互關係가 全體的으로 解決되고 이에 의해 解決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偶然에 의하여 成功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정확히 問題와 事實을 洞察한 後 直觀에 의하여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필러'의 實驗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새로운 측면, 새로운 각도의 觀察은 創意的의 要件이라고 할 수 있다. 'E.데보노'는 創意的 思考는 '문제를 解決하는 데만 有用한 것이 아니라 事物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한 순간의 洞察力이 주는 착상으로부터 나오므로 事物을 보는 角度를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종래의 方式만을 고집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를 수 없고 問題와 事物에 대하여 側面에서 分析 觀察하고 綜合의인 檢討로 전체를 洞察할 때 問題解決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創意的力이란 產物에 대하여 여러 角度의 方向으로 접근하여 直感적으로 洞察力에 의한 豫見이다.

다. 創意的은 '아이디어'의 產出能力

'오스본(Osborn)'은 思考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分析, 比較, 選擇하는 判斷의 思考와 構想하고 豫測하고 '아이디어'를 產出하는 創意的 思考로서 이 두 가지 사고기능은 分析 綜合한다는 點에서 동일하나 判斷의 思考에서는 比較 分析해 보고 選擇한 것은 선택하고 버린 것은 버린다.

즉, 結果의 으로 생기는 要素들을 모아 結論을 내리는데 '創意的 思考'는 그 結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創出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디어'는 착상된 것을 綜合, 總合, 再構成의 因子들에 의해 실제로 具體化함으로써 하나의 '아이디어'가 산출되는 것이다.

具體性 因子는 '아이디어'를 具體化하거나 정밀화하는 能力이며 再構成, 總合 등의 因子는 새로운 觀點에서 分析된 要素를 再構成하는 能力을 말하는 데 創意的 過程에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具體化하는 段階에서는 再構成, 再構造, 再組織 등의 手段이 중요한 要素가 된다.

5. 創造的 思考의 障礙要素

가. 創造的 思考의 障礙要素와 그의 극복

人間이 生活하면서 思考하는데 많은 要素들이 思考活動을 妨害하고 있다.

이러한 障礙는 여러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대별하면 네 종류로 分類될 수 있다.

(1) 習慣

-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固定的 習慣과 知覺的 習慣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固定的 習慣이란 우리의 思考活動이 傳統, 慣習 또는 現在 절차에 의해 影響을 받거나 制限을 받아 變化에 대한 反抗적 態度를 形成케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精神은 創造力을 기피하고 固定된 틀에 따라 계속적으로 思

考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知覺的 習慣이란 우리의 過去 體驗이나 知識 등의 結果에 기인하여 그것에 비추어 어떤 事物을 認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간접적인 關係를 知覺하는 能力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知覺活動은 주로 視覺을 통하여 들어온 것에 依存하는 것이지만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건 그 知覺된 事實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또는 歪曲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事實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障礙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感覺機關은 속기 쉬운데, 특히 감각기관이 事物을 不完全하게 또는 不確實하게 知覺하였다면 創造的 思考를 하는데 阻礙적인 障礙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恐怖心

- 공포심에 障礙를 받은 사람은 思考를 하는데 과감성을 잃어 버리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거나 행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는 웃음거리가 될까 봐 걱정을 하거나 機能을 잃거나 영동한 소리를 해서 자신의 職業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감히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차라리 침묵을 지켜 버리는 것이다. 새로이 展開될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어떤 압박감을 느낄 때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 외면해 버리고 만다.

(3) 선입편견(先入偏見)

- 선입편견은 '사건의 認識判斷'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偏見은 父母, 先生, 親戚, 社會 및 環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先入偏見은 비단 個人뿐만 아니라 어떤 一定한 集團, 民族 또는 國民性에도 계재되어 作用된다. 그 이유야 어떠한 偏見은 우리의 眼目을 흐리게 하여 存在하지도 않는 問題에 주의를 집중케 하여 모든 事實을 전부 알기 전에 성급하게 判斷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偏見의 또 다른 形態는 권위 의식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立場을 지키기 위해서 他人의 意見を 들으려 하지 않고 더구나 他人의 생각이 자기와 반대인 것일 때 全的으로 무시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4) 관성(慣性)

- 生理學에서 관성은 어떤 事物이 일단 움직

였을 때 그대로 活動하고 同一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일단 정지된 狀態에서는 다른 힘이 가해질 때까지는 그대로 停止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精神作用에서도 通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이 方向을 바꾸거나 새로운 思考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必要하게 된다. 慣性的 特定한 종류는 自我 만족으로부터 發生된다. 어떤 節次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낄 때 흔히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는 군.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아.' 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여하히 上記 創造的 思考의 障礙要素를 극복할 것인가? 이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一部를 또는 全部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즉, 習慣은 그러한 障礙가 있다는 것을 意識하기만 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問題解決을 위해서 좀더 좋은 方法을 찾으려는 問題意識을 작고 계속 노력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을 해야 한다. 資料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感覺機關을 계속 活用하여 事物을 넓게 보려는 새로운 眼目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必要로 하는 제반 情報資料를 우리의 知覺障礙 때문에 그 全部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恐怖心은 習慣에 비해서 쉽사리 다루어지지 않는 障礙이다. 어떤 압박감을 받고 있는 分野에 대해서 의식적인 評價나 判斷을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써 이 障壁을 克服해 나갈 수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시 배우려는 노력과 公式, 非公式을 불문하고 계속적인 再教育 計劃에 적극 參與하여야 한다.

또한 慣性的 障礙를 克服하는 데는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것에는 항상 보다 더 좋은 方法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다. 問題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 앞에 단지 한 개의 障礙만이 活用한다면 問題를 解決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양지지만 앞서 서술한 네 개의 障礙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作用하며 때에 따라서는 네 가지가 一時에 作用될 때가 있다.

風水文化



金容植 교수

風水地理學은 元來 古代中國에서 發祥한 것으로 人類文化가 시작하면서부터 風水文化를 基礎로 하여 집터를 잡고 家庭生活를 시작하였다.

이에 農耕産業이 시작될 때 風水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住宅文化가 시작될 때 어느 곳에 집을 지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대문을 내야 하며 가족생활은 어떻게 하며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때 風水文化로서 개인의 집터와 마을터를 잡았다. 그 다음에는 마을과 마을이 생겨 이를 통괄하는 面 소재지 터가 조성되었다.

그러한 생활환경이 확대되어 郡廳 소재지가 생기고 나아가서 道廳 소재지가 조성되고 일국의 首都가 생길 때 風水思想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풍수문화의 원천을 살펴보면 이는 중국의 秦나라 때에 朱仙桃라는 사람이 땅의 이치를 기본으로 하여 풍수를 應用 控山記라는 저서를 만들었는데 神秘하게도 인류생활에 미치는 影響이 現實과 中의하므로 이 사람이 朝廷에까지 알려져 秦始皇은 이를 押收, 왕실에서만 이 秘訣을 사용하도록 하고 一般人에게는 이를 못쓰도록 조치하였다. 왜냐하면 風水에 의하여 아무나 모친 잘라서 서이 나오면 王室의 정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를 防止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漢나라 때에는 靑烏子라는 사람이 陰陽五行을 應用하여 靑烏經이라는 經典을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王室에서만 適用되었을 뿐이다.

그 뒤 東晉나라 때에는 郭璞(景純이라고도 함)이라는 사람과 張子微 등이 나와 당시의 風水地理大家로서, 특히 郭璞은 신나라의 尙書라는 높은 관직을 역임한 자였다. 靑烏子, 郭璞, 張子微 등을 風水地理 三師라고도 하였다.

한편 郭璞은 葬書를 지었는데 이 경전은 唐代에 와서 현종이 이를 回收하여 일반에 공개 못하도록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장능 속에 保管하였다 하여 비단 錦자의 주머니 囊자를 붙여 錦囊經이라는 異名으로도 有名하다.

唐國師인 楊公은, 號는 龜翁이며 字는 茂長으로 楊公은 靑囊經이라는 著書를 만들어 風水地理學을 應用하므로 貧窮한 자가 富貴榮華를 누리니 衆生을 救濟하였다 하여 救貧先生으로도 尊稱받았다 한다.

송나라에 와서는 陳搏이라는 사람이 風水地理에 가장 알려진 大家이며 그는 地理學과 易術學에 達通한 사람이었다. 그 뒤에 元나라와 明나라 때에는 劉伯溫과 劉善天 등이 나와 風水思想을 定立하였다. 풍수사상은 住居의 陽宅風水사상이 먼저 전개되고 그 다음에 陰宅風水가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 풍수지리학이 傳來된 것은 新羅말의 名僧 道詵에 의하여 傳受되었다. 도선은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大義에 통하는 불도들은 神으로 추앙하였다. 이는 中國의 유명한 一行禪師로부터 풍수지리학을 사수받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보급하였다.

道詵國師는 山形과 地勢를 人體의 人形과 組織을 比較하여 應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國家의 變亂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肉體

에 病이 생기는 것과 같다 하였다. 모든 病은 治療할 때 鍼을 놓고 환부에 뜸집을 하고 手術을 하는 것은 마치 名山의 地勢에 培을 쌓고 疇을 지어 國家의 變亂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 고 하였다.

그의 陰陽地理法과 風水相地法은 우리나라 風水學의 基礎를 確立하고 그 金容植 교수宅과 陽宅으로 구분하는 全盛을 豫告하였던 것이다. 이 學問은 高麗와 李朝를 통하여 크게 影響을 준 學問으로 高麗 숙종은 大禪師 王師의 벼슬을 내리고 仁宗은 先覺國師라는 벼슬을 追封하였다. 또 선국사는 지리학에 의하여 樞都를 국도로 정하면서 송도의 운명을 500년으로 예언하기도 하였다.

특히 도선국사는 地理變旺說, 地理順逆說, 禱補說 등 道洗秘法을 後世에 남겨 더욱 有名하다. 또한 고려말기에서 李朝初의 名僧 無學大師는, 姓은 朴氏이며 이름은 自超이고 호는 無學이다. 無學大師는 慶尙道 三枝郡 사람으로 山과 水를 배우면 열을 아는 聰明한 才士이므로 호를 無學이라 한 것도 없을 뿐 배울 학자로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李太祖의 王師가 되어 이조 500년의 都邑地를 漢陽에 정하여 준 것으로 有名하기도 하다.

그 후에도 地理學을 研究 開發한 훌륭한 道師들이 속출하여 風水地理學과 風水理論을 定立하여 風水學의 中興을 이루었다.

河南갈은 사람은 陰陽五行 風水地理와 醫術, 天文까지 達通하였다. 특히 鷄籠山 遷都를 자기 혼자서 반대하여 공사를 중지케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右議政을 거쳐 領議政 府使까지 지낸 뒤 晉山府院君에 피봉되었다. 그 뒤 李栗谷 선생은 十萬菴兵說을 주장하며 壬辰倭亂을 예언하여 이를 적중시킨 것을 비롯하여 갖가지 비결을 家藏經으로 많이 남겼다.

南師古 先生의 著書목록, 이지함 선생의 托濟비결, 李重煥 선생의 擇里志, 鄭龜 先生의 鄭鑑錄 등은 놀랄 만한 豫言錄으로 有名하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내려온 風水地理學이 開化期를 맞이하여 세계적 종교인 기독교의 盛行으로 近代에 와서 日帝 三十六年을 거치면서 風水學扶政策으로 迷信化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과학 문명 발달에 가려 學問 自體를 否定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人類文化의 創造때부터 風水文化가 始作되어 약 2,000년 동안 이어오다 近代에 와서 사양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풍수라면 어찌든 오래된 것이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풍수를 말하느냐 하며 아홉로가 수십 번 달나라에 다녀왔는데 무슨 풍수냐고 반박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강산도 이 강산으로 풍수는 그때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강산에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바람과 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의 풍수와 지금의 바람과 물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풍수지리학은 陰陽論과 理氣論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形氣論과 理氣論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필자는 生氣論(지기와 수맥)을 增補하여 현대 감각에 맞추어 論述하고자 한다. 생기론이란 지하의 땅기운 모이는 곳과 지하의 수맥이 지나가는 곳을 찾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론이라 한다. 땅에서 제일 좋은 곳이 땅기운 모이는 곳이므로 이곳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음택에도 形氣論과 理氣論을 應用하고 生氣論으로 땅기운 모이는 곳에 穴處를 定하여야 한다. 양택에서도 兩氣論(헝기와 이기)을 應用하고 생기론으로 땅기운 모이는 곳에 택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많은 地理家들이 生氣인 수맥과 지기를 깊이 연구하여 땅기운 모이는 곳을 찾는 줄 아는 地理人이 되려고 힘쓰고 있다.

높은 산과 靈山 밑에서는 賢人이 나오고 낮은 산과 평지에서는 普通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높은 산은 地氣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높은 산이 되었고, 낮은 산은 地氣가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낮은 산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地氣가 많은 곳은 큰 사람이 나오고 地氣가 적은 곳에는 보통 사람이 나오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形氣論에서는 산의 형세를 보고 길흉을 논하는 것으로써 마치 사람의 얼굴을 보고 善惡을 논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 고으면 그 사람의 마음씨도 고운 것이며 사람의 얼굴이 흉악하게 생겼으면 그 사람의 마음씨도 악한 것이다. 예를 들면 生氣論은 人體의 가장 중요한 곳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산의 형세에서도 穴處를 찾는 것은 생기를 응용하여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筆者는 七十 平生을 사는 동안 40여 년을 風水地理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修學을 하면서 現實生活와 周圍環境이 學問과 너무나 일치됨을 確認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학문의 高貴함과 奧妙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그래서 古代歷史에서는 新羅末부터 高麗를 거쳐 李朝末葉까지 風水文化가 國民生活의 攸關이로서 盛行하였다. 高麗末期에는 풍수지리학을 國民教育으로 실시하여 온 국민의 머릿속에는 風水思想이 깊게 뿌리박혀 있어 오늘날 宗教人까지도 墓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認識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當時에는 科擧制度가 있어 地理學科에 及第하면 地官이라는 官職을 주었다. 그들의 官職으로 都邑을 定하고 마을을 選定하는 등 古代文化를 風水文化로 發展시켰으며 천하명당, 대명당에 陽宅과 陰宅을 選定함으로써 역사의 인물 이 많이 나오고 偉人과 奇人 등이 탄생하여 이 나라를 지키며 다스리며 그들의 업적은 역사가 길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천부적인 재질과 신동력으로 超人的인 神話와 傳說을 남기기도 하였다.

壬辰倭亂 當時 倭人에서는 李舜臣 將軍과, 육지에서는 權慄 將軍, 僧軍 總司令官인 西山大師의 바람과 꿈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풍수사상과 풍수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偉人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명당을 버리고 찾지 않기 때문이다.

倭人들은 國師의 한일합방 후에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風水地理學으로 우리나라 名山의 龍脈에 쇠말뚝을 박아 흐르는 氣를 切斷하였던 것이다.

예문 들면 日本人들이 日帝 三十六年 동안 우리나라에 저지른 蠻行을 살펴보면, 첫째 景福宮 앞에 總督府를 지었고 우리나라 名山大地 128개소(확인된 것만)에 쇠말뚝을 박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新設道路를 내면서 故邑의 龍脈을 끊은 곳이 不知其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倭人들은 우리나라에 共同墓地法을 만들어 韓國人은 죽으면 모두 共同墓地에 묘를 쓰게 하고 宗室에는 墓를 쓰지 못하도록 禁止하였다. 그러나 風水地理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공동묘지에서 私宗山으로 移葬을 하면 後日에 日帝 警察이 와서 다시 共同墓地로 옮기도록 強制 執行을 한 것이 日帝의 행위이었다.

이 모든 행위가 우리나라를 永遠히 日本國의 屬國으로 만들고 한 凶計임이 立證되고도 남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人들은 우리나라에 풍수문화를 斷切하기 위하여 各種 專門書籍을 日本國으로 가져가고 우리에게서 풍수문화를 採殺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일본인들은 自國에 易術小學校, 易術中等學校, 易術大學校를 설립하여 易術碩士, 易術博士 등을 輩出하여 풍수문화가 盛行하였다 한다.

그들은 이러한 학문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納得하도록 하여 未來學으로서 험난한 人生航路에서 다가오는 凶厄을 事前에 豫防하려고 했던 것이다.

孔子께서도 생사는 命에 있고, 富貴는 하늘에 있다 하였다. 또 道統國師는 富貴榮華는 明堂에서 오고 貧賤凶禍는 凶地에서 온다 하였다. 때문에 人間은 누구나 잘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愚昧한 사람이 多福하게 사는가 하면 聰明한 사람이 不幸하게 사는 경우가 우리 周圍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이 自然속에서 하는 人間의 關係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悲劇을 사전에 알고 聖賢들의 智慧로 지각한 분 학문을 照明하여 禍吉을 避하고 吉福은 取하여 各自의 運身을 開拓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人間之事가 아니겠는가?

健康

코너

실컷 웃고 울어야 「치매」 막는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면 적잖은 노인이 "나만 노인이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느냐?" 하고 버럭 화를 낸다.

일본,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5.7%인 실버국가. '오래 그리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28년째 연구하는 곳이 있다. 도쿄(東京) 이타바시(板橋) 구에 자리잡은 노인총합(總合)연구소. 1백68명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일본 최대의 노인-노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젊을 때 머리를 많이 쓰라.

'72년 도쿄도립연구소로 출발, 자율적 연구와 출판을 위해 '81년 재단법인 노인총합연구소로 탄생. 분자생물학 생리노화학 등 생명과학분야에서 심리학 생활환경학 등 사회과학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6개 부문에 걸친 토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년 연구비 32억 5천 여 만엔(약 3백 47억

원). 연구의 변함없는 화두는 '성공적인 늙음(Successful Aging)'.

연구소 부소장 안도 스스무(安藤進) 박사. 그가 이끄는 세뇌기능연구팀은 뇌에서 신경에 자극을 전달하는 시냅스의 숫자가 줄어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젊을 때 독서나 그림 등 창작활동을 통해 머리를 많이 써 시냅스의 숫자를 충분히 늘려 놓아야 합니다. 못가차 차라리 '속시원히' 물어버리는 적극적인 감정표현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있어 운동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승패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선택기준. 골프나 테니스 등 승리감 또는 절망감을 분별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치열한 경쟁의식을 갖는 게 효과적이라는 설명. 바둑이나 장기도 여기에 속한다. 또 원만한 성격의 사람보다는 강렬히 남을 욕하거나 반대로 욕을 먹는 등

극단적 감정표현도 뇌로서는 '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노화강좌

노인총합연구소는 학문적 연구 결과로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세 차례씩 '노화 공개강좌'를 연다. 특히, 노인과 함께 사는 젊은이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처법을 설명하는 이 강좌는 매년 6백 이상이 몰릴 정도로 인기 있다.

치매 조기발견

굼면증, 피해망상증, 우울증 등 치매에 수반되는 증상과 달리 치매 자체는 아직 완치가 불가능. 따라서 이 연구소에선 치료와 더불어 치매증세의 조기발견에 큰 관심을 쏟는다. 연구소 부설 양성자 의학센터에서 실시 중인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양전자방출 단층촬영)

검사.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해 이 원소들의 체내 움직임을 사진으로 찍어 신경 전달물질이나 영양소의 대사와 분포상태 등을 알아내는 방법. 현재 일본내 27개 연구소와 병원에서 임상실험 중인 이 검사가 대중화되면 모니터를 통해 뇌내 포도당 공급상태와 혈류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치매의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노이로제

의학센터 연구실장 센다 미치오(午田道雄) 박사는 "최근 '너무 자주 잊어버리거나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진다. 이는 유로진 진단소를 찾는 40, 50대가 늘고 있다."면서 "정작 치매도 아닌 '치매 노이로제'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중년들이 많아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편집실>

자기애 인격장애자(病的 나르시시스트)

■ "혹시 저 사람" 자기애 인격장애 진단법

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실제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 대령하게 주기를 바란다.

② 끝없는 성공 또는 권력, 명성함, 운명적인 사랑 등을 믿고 집착한다.

③ 자신은 특별한 독특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특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④ 주위사람에게 과도한 감탄을 요구한다.

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남들은 자신의 말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⑥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 착취한다.

⑦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없다.

⑧ 질투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⑨ 잘 체하고 건방진 행동을 잘 한다.

▼ 진단방법 =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위사람이 평가한다. 5개 이상이면 '자기애적 인격장애'. <미국정신의학회 정신병 진단분류표 'DSM-IV'의 기준>

① '조그만 일'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

② 늘 '젠 체한다.'는 욕을 들으며 '왕따'를 당하면서 또 다른 아이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③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 회상동료들을 지나치게 이용하는 직장인

④ 특징인을 좇아다니며 과몰입하는 사람(스토커) 열핏 보기에 공통점이 없지만 정신과 의사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 각 항목의 사람들은 자기를 극도로 소중히 여기는 '자기애 인격장애자'일 가능성이 크다.

▼ 자기애 인격장애자인? =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로도 불린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 그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굶어 죽었다.

정신과에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여기면서 남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해로운 자기애'의 저자인 이스라엘의 슈무엘 바크닌 박사는 "나르시시스는 자신이 아니라 연못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했다."면서 "자기애 인격장애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허상(虛想)을 극단적으로 사랑한다."고 설명.

▼ 자기애는 필요없나? =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은 필요하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울증에 덜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자기애는 어려울 때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반면 자기애 인격장애자는 자신의 허상(虛想)을 만들기 위한 대상으로 남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감탄하지 않으면 증오한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 하급자를 채근한다.

또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에 뛰어들면 망신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험을 싫어한다.

5년 이상 재수를 하거나 10년 이상 고시공부에 매달린 경우처럼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목표에 매달려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업무에서 정한 목표만큼 성취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며 매사에 흥미를 잃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도 한다. '모 아니면 도'식의 성격이어서 한 번 안되면 쉽게 포기한다.

▼ 왜 생기나? = 병적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상태는 '현재로 대우받고 싶은 아이'. 정신분석학자들은 24개월 미만의 어린시절에

충격을 받거나 딸은 아버지, 아들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않아 성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분석. 부모가 과보호하거나 '특별한 사람'이기를 요구하며 키운 경우, 다른 아이에게 지지않고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친 경우에 많이 생긴다. 환자 중에 의욕이 많은 것도 특징.

▼ 주위에 '환자'가 있다면? = 가족이 아닌 경우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르시시스트는 가깝다고 여긴 상대에게 무시당하면 더 상처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가족이 환자라고 느껴지면 재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병원에서는 면담요법이 주치료. 3~7년 동안 매주 4~5회 45~50분씩 상담하며 환자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근원적 치료. 1~2년 주 1, 2회 상담으로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 2차증세로 우울증, 강박장애, 충동장애 등이 올 경우 증세에 따른 약물을 복용시켜 치료.

<자기애 인격장애 세 가지 유형>

▼ 자신은 천재라고 믿었던 A씨(25) = 명문대를 졸업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교수들에게 도저히 대답하기 힘든 문제를 질문해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나이

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대학졸업 후 특별한 존재로 살기 위해 피자가게 배달원을 직업으로 택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 늘 아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했다.

▼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B씨(30·여) = 미모에도 푹푹하다. 직장인 제약회사에서 약을 훔치다 들켰다. 자신의 머리가 좋아 들리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아버지는 근로자. 딸에게 큰 기대를 하면서도 대학졸업까지 학비를 대주지는 못해 그는 학비를 벌면서 공부했다. 그는 자신을 '불운한 천재'라고 믿고 있다. 사랑과 오래 만나 사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싫어해 연인을 늘 바꾼다.

▼ 인생의 실패자라고 믿는 C씨(45) = 기업의 고위간부였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 성공했다고 믿었으며 능력없는 직원들을 경멸했다. 그러나 회사사적으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경영대학원에 다니게 되자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겼다. 때마침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들이 반항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믿고 의기소침.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 존 건더슨 교수의 논문 '나르시시틱 퍼스낼리티'에 소개된 내용)



고속도로 통행료는 소중한 투자자원

외국에 비해 훨씬 싼 고속도로 통행료이지만
지난 해 그 수입은 1조 3천 48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신설과 확장사업 등에
투자한 돈이 한 해 모두 4조원이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넉넉잡은 정부재정에서 출자받기도 하지만
매년 상당부분은 이자부담이 높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정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내시는 통행료는 단순히 통행료가 아니라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의 소중한 투자자원입니다.

